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장효근

춘천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 127호 2009년 6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6월!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6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24~25)

INDEX

3 춘천성시화운동, 세계의 주목을 받다!
4 거룩한 도시춘천을위하여부르짖으리니
8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헤니 손신자 권사편)
11 성경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9 똑똑한 등산이 내몸을 살린다(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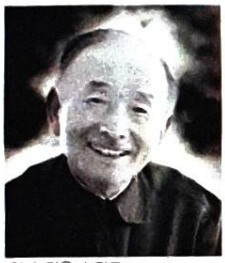
13 헨리 풀 이즈 히어 (Henry Poole Is Here)

민족의 큰 스승 김용기 장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일가 선생의 하나님 사랑과 민족사랑



림 영 철 (일가사상연구소장)



일가 김용기 장로

평생 이상촌운동을 펼쳤고, 그 일환으로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였고, 한국 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운동의 원류가 되었다고 하여 많이 알려진 '一家 김용기 장로'. 그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그의 열렬한 애국심에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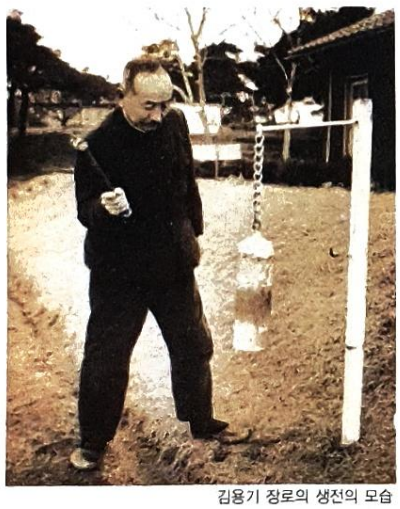
그의 애국심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가 10살 때 3.1운동을 목도하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선봉이 되어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외치던 만세소리가 있었고, 그가 중학생일 때 체육선생이 시간마다 손을 불끈 쥐면서 절규하던 힘찬 구호가 그를 감동시켜 그의 머리에 각인(刻印)되었다. 그것은 평생을 두고 그의 삶을 이끌어갔다.

실력을 키우는 독립운동의 기지, 이상촌 건설

학교를 마치자마자 一家의 계획은 만주의 한 마적단에 들어가 이를 키워서 중국을 장악하고 그 힘으로 일본을 무찌르면 될 것이라는 많이 황당하지만 젊은이다운 상상력을 가지고 만주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적은데서부터 실력을 키워야겠다고 결심한다. 그 실력을 키우는 길이 바로 이상촌 건설이었다.

당시 나라를 강탈당한 한국인들의 구국(救國)방법으로는, 첫째로 싸워서 일제를 물아내야 한다고 하는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와 둘째로 실력을 키워 극일(克日)해야 한다는 개화파(開化派), 그리고 그 중도파인 동도서기파(東道西器派)가 있었다. 대개 기독교인들은 개화파에 속해 있었고 그들은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의 하나로 이상촌운동을 전개하였다. 도산 안창호와 남강 이승훈 그 외에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국내와 만주에서 이상촌을 세웠으나 1930년대 일제의 심한 탄압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을 때 一家는 그의 고향 봉안에 이상촌을 세워 독립운동의 기지(基地)로 삼았다.

그가 세운 봉안이상촌의 목표는 조국의 독립이었다. 그 독립은 실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당시 한국은 85%가 농민이었고 일제의 가렴주구로 굶어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이런 정치, 사회상황 하에서 一家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선배들이 보여 준 이상촌운동이었다.



김용기 장로의 생전의 모습

그는 먼저 덴마크의 국부 그룬트비히 목사와 국민고등학교를 세운 크리스텐 콜, 그리고 황무지를 옥토로 만든 달가스와 미국의 서부개척사를 공부하였다. 그리고 황무지를 구입하여 고구마를 재배하는 등 개척을 경험하며 준비하다가 1935년 그의 나이 26세에 그의 고향에 10집을 모아 이상촌을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민족정신을 가진 지도자 양성

그는 이상촌 중앙에 세워진 교회를 중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르쳤고, 우리 민족정신과 개척정신, 근로정신과 절약정신, 봉사정신과 협동정신 등을 가르쳤다. 농장과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농업기술, 건강의 중요성과 인내를 가르쳤다.

세계 역사의 흐름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국권이 회복될 때까지 한국인이 할 큰일은 굶지 말고 살아남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먹을 것을 줘야했다. 기름진 「먹을 것」은 일본 침략자들이 다 빼앗아 가니 부득이 빼앗기지도 않고 수확도 많은 먹을 것을 재배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고구마와 옥수수, 감자와 잡곡들을 많이 심는 농사를 택하였다.

一家가 일을 통하여 보여준 애국심은 먼저 직접적인 독립운동으로서 봉안이상촌을 중심으로 하여 젊은이들이 징용에 끌려가지 않게 보호하고, 독립투사의 보호와 그들 간의 연락, 창씨개명과 공출에 대한 저항운동 등이었으며, 실력배양 운동으로는 아름답고 부유한 모범적인 이상촌을 만들어 한국 농민들에게 보여 줌으로 하나의 모형(模型)이 되어 농민에게 희망과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그리고 이런 농민들이 먹을 것을 많이 생산하는 농업이었다.

이런 一家는 그의 이상촌운동에서 그가 목표로 했던 일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다. 문제는 해방이 되면서부터였다. 나라는 분단되었고 사회는 극도로 혼란하더니 드디어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 남침 전쟁이 터졌고, 한국은 초토화 되었다. 이 민족상쟁은 초근목피를 씹는 굶주림으로 몰아넣었다. 해방이 되면 다 잘 될 줄 알았지만 「먹을 것을 줘라」하는 일제하의 이상촌운동을 -미국의 구제물품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에도 버릴 수가 없게 되었다. 一家는 해방 후, 네 번에 걸쳐 일터를 이동하면서 황무지를 개척하여 농장을 개척하였고 이상촌을 건설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촌, 가나안농장에 다 농군학교를 세워 농촌지도자와 사회지도자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세상은 그의 이런 애국심과 공적을 인정하여 여러 가지 상을 주었고, 정부는 그의 사상과 경험을 모형으로 하여 새마을운동의 기초로 하였고, 그것을 조국 근대화의 거름으로 삼았다. 그리고 1988년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농민들은 그를 「농민의 아버지」라고 추앙하여 불러주었다.

一家의 이런 사상과 정신, 신앙과 애국심은 지금도 계속되어 국내외에 세워진 십 수개의 가나안농군학교와 그의 사상을 널리 펴려는 일가재단, 그리고 협동운동으로서 가나안신용협동조합, 그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십만 명의 「김용기 후예」들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고 있다.

〈 림 영 철 이력 〉

· 충남 서산에서 1936년 생
· 교육철학 전공(서울대학교 석사, 한양대학교 박사)
· 가나안농군학교 근무(30년, 교사 → 교장)
· 평택대학교 근무(12년, 교수, 대학원장)
· 현재 : 평택대 명예교수, 일가사상연구소장, 제1가나안농군학교 상임고문, 평택대학교회 장로
· 최근 저서 : 일가 김용기와 가나안이상촌운동(2009)



춘천 성시화운동, 세계의 주목을 받다!

미국 휴스턴변혁대회에 다녀와서



박 인 관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국제위원장)

도시변혁을 주 사역으로 하는 WT(World Transformation)에서 개최한 이 대회는 미국의 4대도시인 휴스턴의 도시변혁을 목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우리는 이 대회의 총 진행자 탐 빅터 목사와 WT의 대표 루이스 부시 목사의 초청을 받아 참여한 것이다. 이 도시변혁선교회에는 우리 춘천출신의 인도 비하르 이영길 선교사가 총무로 섬기고 있어 이미 이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들은 춘천을 두어 번 다녀가 춘천의 성시화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우리가 이 대회에 참여하기를 꺼려했던 것은 춘천이라는 도시가 특별히 다른 도시에 비해 현격히 성시화가 이루어져 글자 그대로 거룩한 도시가 되어있다면 망설일 것이 없었겠지만 다른 도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탐 빅터와 루이스 부시 목사는 춘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미국의 많은 도시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 춘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연합회 상임총무 김성호 목사, 성시화 사무총장 정재호 목사, 평화성결교회 염윤호 목사, 그리고 연합회의 영역총괄과 성시화의 국제교류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본인(박인관 목사)도 참여하였다.

미국휴스턴변혁선교대회 상황





이 휴스턴대회는 도시변혁선교회에서 휴스턴이라는 도시를 변혁시키기 위해 도전하는 자리였다. 미국의 48개 도시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7개 국가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3박 4일 동안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모임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9시30분까지 타이트하게 진행됐다. 전체모임에서는 특별히 도시가 변혁된 모델이 되는 도시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브라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춘천도 소개되었다. 그 외 시간에는 도시변화분과, 지식경영분과 등 7개의 영역별로 나뉘어 분과별로 주제를 발표하고 토의 워샵을 갖고 저녁에는 함께 은혜 받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 순서였다.

이 대회에 참여한 우리는 고민이 많았다. 춘천의 성시화를 소개해 달라는데 뭐 보여줄게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뭐 통계수치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처음에는 막막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머리는 회전하며 자료가 정리되었다.

세계 속에 주목받는 춘천 성시화운동

다음날 밤새워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를 발표하였다. 시간은 단지 30분. 우리의 발표 순간순간 미국 목회자들의 자세는 달라져 의자를 고쳐 앉으며 눈을 응시하며 주의 깊게 경청하였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오고 쉬는 시간마다 사람들이 찾아와 대화를 요청하고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Wonderful!, Great!, Absolute!를 연발하였다. 뉴욕 대표는 오는 9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세계적인 도시변혁대회를 하는데 지금 소개한 것을 다시 한 번 전해줄 수 있겠는가 물으며 우리를 초청하였고, 인도네시아 대표는 흥분하여 춘천에 오고 싶다며 우리 또한 인도네시아에 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비디오를 제작하여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춘천에 와서 촬영하여 모델도시로 세계에 소개하고 싶다고 하였다.

우리는 처음에 춘천의 성시화가 별로 이룬 게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WT본부에서는 당신들이 펼치고 있는 이 도시변혁 운동을 춘천에서는 벌써 1960년대부터 꿈꾸었고,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모여 도시변혁을 위하여 수십 년간 기도하여 왔으며, 성시화운동본부라는 도시변혁을 위한 자체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국 28개 도시로 번져 실제로 놀라운 변혁이 도시마다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LA. 등 12개 도시에도 이미 번졌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감동하였다. 그러고 보니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춘천 출신의 선교사가 300명이 넘고, 춘천고등학교 한 학교에서만 목사가 120명가량 배출되었다. 인구 25만 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도시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치고 있는 것에 그들은 그 자체에 감동이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춘천은 대단한 도시이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춘천을 사랑하지 못하고 과소평가하였다. 이제 일어날 때이다.

지금은 성시화를 통해 도시변혁선교에 기여할 때

바로 이러한 선교 네트워크시대에 우리 한국은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 한국의 영성은 가히 세계가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선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은 이미 미국의 선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만큼 실로 선교의 중요한 요직과 역할을 장악(?)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영적공항상태나 다름없다. 릭 워렌 목사의 새들백교회나 시카고 빌 하이빌스의 윌로우크릭교회를 비롯한 몇몇 대형교회가 두각을 나타내며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고 대도시마다 수십 개의 메가급 교회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전역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침체를 넘어서서 가히 공항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중 미국 목회자들은 고충을 토로했다. "이제는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 아니 전도할 수도 없다, 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문제점을 찾고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감동적이었으나 해결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 교회의 성시화운동을 예로 들며 문제의 영적인 측면을 제시하였을 때 그들의 눈에서 빛이 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 우리 한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 하나였다. 나라가 크거나 지하자원이 많거나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가진 것은 영성, 열정이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으며 교회의 부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의 부흥에 기여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인격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춘천의 성시화가 세계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춘천성시화의 과제

마지막으로 우리 춘천이 명실상부한 성시화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연합하여야 한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연합하여야 한다. 이제는 한교회가 선교를 담당하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하여 선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연합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역별로 팀을 이루어 교회 밖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성시화를 이루어야 한다. 시청과 도청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각 분야별로 일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영역별 성시운동이 활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대한다. 지금은 비록 소원해 보여도 이 길을 가야만하고 이 꿈은 이루어야만 한다. 아니, 이미 전 세계에 한국의 영성이 알려졌고 더욱 이번 휴스턴대회를 통하여 춘천의 성시화가 세계에 알려졌다. 그렇다. 말 그대로 춘천이 성시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목회의 꿈이어야하고 전 춘천 성도들의 꿈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춘천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 아니겠는가? 상상해 본다.

제 2회 2009 청소년 비전캠프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세대를 준비하라



현재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세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즉 교육을 통한 선교적 사명을 완성하라고 부탁하셨다. 21세기는 선교적 사명이 완성되는 위대한 세기가 될 것이다. 이 위대한 세기의 주인공은 바로 청소년들이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세계무대에 나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비전캠프'를 마련하였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여 쓰임 받는 하나님나라의 인재가 양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제: "비전 민족 역사 도전"

- ♣ 일 시 : 2009년 8월 10일~15일 (5박6일)
- ♣ 장 소 : 중국 대련, 단동, 심양, 백두산, 연길
- ♣ 프로그램 : 고구려유적지방문, 백두산등정, 단동기 나안농군학교 훈련, 조선족교회 등
- ♣ 경 비 : 600,000원(예상)
- ♣ 마 감 : 7월 15일까지, 선착순 15명(모집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캠프취소)
- ♣ 주 최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문의: 256-1260, 010-3118-9355
- ♣ 후 원 : 춘천기독교연합회 선교위원회, 춘천성시화 국제위원회, 통일나눔터, 바나바교회(유학생)



거룩한 도시 춘천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 홀리클럽 창립 13주년 성령대부흥회에 즈음하여

참여자: 이학규(춘천홀리클럽 회장 · 대회장, 석사교회 장로), 김영명(춘천홀리클럽 부회장 · 준비위원장, 동신교회 장로)

한국홀리클럽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춘천홀리클럽〉은 1996년 6월 8일 도시근교 "유명산"에서 당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전용태 장로와 춘천지방법원장 양인평 장로, 그리고 강원일보사장 조남진 장로 등 춘천성시화의 꿈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창립하게 되었다. 같은 해 7월 23일 소양강댐 상류 소양호에서 선상예배를 드린 후 70여명의 회원이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성경공부와 전도, 성시화를 위한 사역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창립당시 지도목사로 김주환 목사가 헌신하셨는데, 1998년 춘천기독교연합회장 겸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홀리클럽이 더욱 활발하게 춘천성시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초대 회장으로 조남진 장로, 제2대 회장에 허천 장로, 제3대 회장 조은제 목사가 일해오던 과정에서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시기에 조은제 목사가 일본선교를 위해 사임하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춘천홀리클럽은 사실상 휴면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2005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총회시, 2006년 춘천성시화 운영계획 중 한 의제로 "춘천홀리클럽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총회 준비위원장으로 이학규 장로를 추대하였다. 2005년 12월 28일 석사교회에서 재건총회를 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제4대 회장 이학규 장로 추대)을 함으로서 춘천홀리클럽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춘천 성시화를 목표로 창립되어 지금까지 기도의 불씨를 이어온 홀리클럽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춘천홀리클럽의 사역과 올해의 중점 사역은 무엇인가?

★ 이 학 규 장로(춘천홀리클럽 회장 · 대회장)

춘천에서 시작한 「성시화운동」이 지금은 국내지역 47개 도시, 국외 13개 도시로 확산되어 명실상부한 세계선교의 꿈을 열매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거듭 감탄하게 된다. 춘천홀리클럽이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된 2005년 이후부터 창립 13주년을 맞는 2009년 5월까지 춘천성시화를 위한 선교활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춘천성시화를 위한 홀리클럽기도회를 매월 지도 목사님 교회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다(총 34회 시행). **둘째**, 2006년 남녀혼성 50여명으로 조직된 **춘천성시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 춘천기독교연합 행사시 매년 정기발표회와 병원, 요양원, 군부대 위문공연, 축하공연 등 폭넓은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셋째, 각종 연합집회 참가 및 섬김이로 활동**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기도회, 3.1절, 8.15기념예배, 6.25구국기도회, 연합성회 등 협력 봉사하여왔다. **넷째, 춘천시정과 사랑실천운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화활동과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군부대와 요양시설 위문활동을 하고 있다. **다섯째, 직능 단체별 홀리클럽을 창립하여 홀리클럽 조직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춘천청년포럼 회원 중심으로 한 청년홀리클럽, 여성중보기도 사역(무궁화 중보기도팀)을 위한 여성홀리클럽, 해병전우회를 중심으로 한 해병대 홀리클럽이 있으며, 의료인 · 언론인 홀리클럽 창립 추진 중에 있다.

★ 김 영 명 장로(춘천홀리클럽 부회장 · 준비위원장)

이 외에도 미신우상타파운동을 전개하여 미신우상의 저주성과 이단사상의 오류를 파헤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일과 전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성시화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 사랑의 큰잔치, 청소년찬양축제, 친선탁구대회, 타 지역 홀리클럽 비전투어, 십자가대행진, 춘천홀리클럽(과거 · 현재 · 미래) 책자 발간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한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춘천성시화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

춘천홀리클럽 창립 13주년 부흥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대회일정과 목표를 소개해 달라.

★ 김 영 명

창립 13주년을 기념해서 오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사일 저녁, 삼일 낮 일정으로 "오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안디옥감리교회에서 성령대부흥회를 개최한다. 이번 선교대회의 목표는 첫째,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춘천성시화」의 조기 실현을 위한 성령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둘째,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홀리클럽 3전 운동을 전개하며 셋째, 춘천이 성시화운동의 발상지로서 선교적 위상을 업그레이드 하며 춘천성시화의 한 지표인 전 시민의 50%이상 기독교인화를 이루는데 두고 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30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든 가정, 교회,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도시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현재 홀리클럽은 춘천 성시화를 사명으로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40여개 교회 지도목사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100여명의 회원들의 열정적인 참여, 그리고 청년 · 여성 · 해병대 홀리클럽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활발히 사역하고 있다.

부흥회 주제가 "오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인데, 취지와 배경은?

★ 이 학 규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운동이나 요한 웨슬리의 영국홀리클럽운동은 모두 성령운동으로 성공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추진해주셨으며 성령의 말씀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춘천 성시화운동도 성령 충만한 부흥운동으로 일어나야 성시화가 바로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 대부흥회」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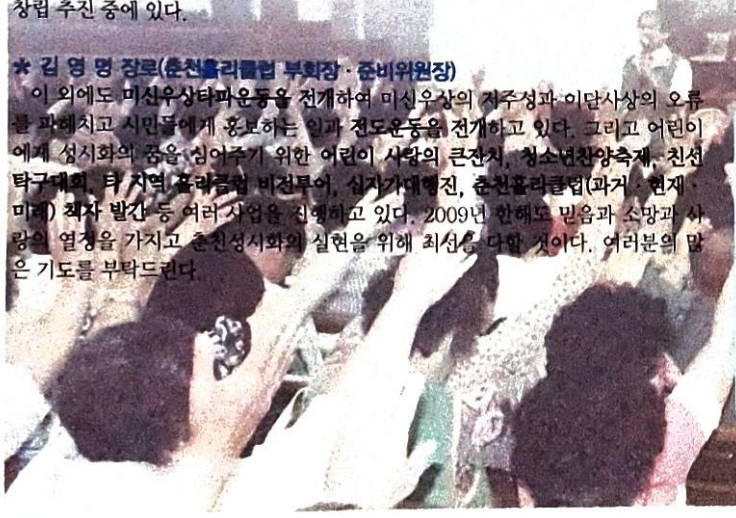
성시화운동은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주제를 "오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으로 나타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 가정이 거듭나게 되고 가정들이 거듭나며 우리사회가 거듭나게 될 것이며 춘천이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문으로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해주세요.

★ 이 학 규

첫째, 집회 때마다 기도해주실 일과 교회는 적극 광고해주시고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이번 부흥회가 전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모쪼록 춘천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한다.

[진행자 : 정재호 / 사진 : 김미경]



〈홀리클럽 창립13주년기념 연합 성령 대부흥회 개요〉

- 일시 : 6. 14(주일) ~ 17(수), 오전 10시30분, 저녁 7시30분
- 장소 : 안디옥감리교회
- 강사 : 김홍도 목사 (서울 금란교회, 기감 전감독회장)
  김삼환 목사 (서울 명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손기철 교수 (온누리교회 장로, 건국대학교 교수)
  전용태 장로 (한국홀리클럽연합회 대표회장)
  최호자 권사 (한국홀리클럽 여성분과 위원장)
  최재선 박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기독교세계관학교 교장)



일본의 부흥을 위하여…

조 영 상 선교사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 I]



루마니아

- 인구(2000) : 22,326,502
- 수도 : 부쿠레슈티(Bucharest)
- 인종 : 루마니아계 85.1%, 헝가리계 7.1%, 로마계 5.4%, 튀르크계 0.8%, 독일계 0.5%, 기타 1.1%,
- 공용어 : 루마니아어(Romanian)
- 모든언어 : 14개 언어(오직 8개 언어만이 신 구약 모두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

〈최근 소식〉

대학 캠퍼스 내에서 학생 사역에 가담하고 있는 학생 단체인 OSCER(Organizatia Studentilor Crestini Evanghelici din Romania)은 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 도시의 대학들 가운데 한 대학에서 20,000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편집위원 조 나 단]

일본 선교를 위한 사역의 씨앗들

조영상 선교사는 1991년 1월 일본으로 파송, 립교대학교 학생전도양육사역을 3년간, 데니스레이니의 가정사역(Family-Life Ministry)을 시작하여 5년, 현지인 무목교회 목회 8년, 교회개척운동 및 도시별 지역교회들의 연합기도운동과 전도운동(일본성시화운동)을 발족 추진하는 사역을 6년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문서전도 및 각종 문화선교사역을 통하여 일본인들을 전도, 양육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한일월드컵대회와 한류의 큰 바람을 타고, 욘사마투어전도, 한글교실을 통한 토요가정교회를 시작하였고, 각종스포츠를 도구로 한 전도운동으로 일본스포츠선교회를 발족하여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CCC의 커뮤니티사역(일본 교회와 지역사회를 돕는 사역)을 맡아 사역하는 중에 최근에는 재일한국선교사, 목회자들의 연합협의체인 재일한국기독교총협의회를 창립하고, 일본전국에 흩어져 있는 1300여명의 한국인사역자들과의 네트워킹과 협력선교사역을 5년째 돕고 있으며, 실행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일찍부터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기총 등과 일본목음동맹과의 선교 섭외위원이 되어 한일교회 협력의 교량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선교 150주년을 맞이한 일본 교회

일본의 교회 수는 약8000개, 한교회의 평균 신자수는 36명, 주일예배출석인원은 24명 정도이다. 아울러서 교회의 과반수는 어린이주일학교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교회에 목회자가 부족하여 겸목하거나 무목교회의 수는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현800여교회 무목,겸목상태) 가운데 2009년은 일본프로테스탄트선교 1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교 150주년을 맞이한 일본 교회는 과거의 일본 교회의 문제점들을 검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한국 교회를 본받고, 미래의 교회지도자양육을 위한 차세대신앙계승문제를 중심테마로 〈동경 요꼬하마 선교대회(7.6~9)〉 및 〈삿뽀로 전도회의(9.21~24)〉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20여명 초청하였다. 이들이 일본에서 집회를 잘 인도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

2002년 한일 공동개최 월드컵, 그것은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다

일본 크리스천 인구는 1%이다.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 모이지만 중학생이 되면 클럽활동 및 여러 흥미 있는 곳을 찾아 교회를 떠나 버리고 마는 청소년들… 이 상태로 일본은 어두움의 지배를 받은 채 빛을 보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걸까…

스포츠를 통해서



2002년 한일공동월드컵이 열려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할 수 있었다. 이 기회를 일본선교를 살리는 계기로 삼아 한국 교회와 홍고다이그리스도교회를 포함한 요코하마의 교회 및 선교사들이 공동으로 "GOAL 2002"라는 전도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요코하마에서는 풋살대회와 가스펠콘서트 등의 이벤트 "축구페스티벌 2002"가 개최되었고 방문객 300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일을 계획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불꽃놀이와 같이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활동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해왔다.

축구스쿨 · 에스페란사의 시작

전 아르헨티나 대표선수였던 오르테가는 겸손한 크리스천이다. 자살이 많은 일본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도토리현에 있는 소년팀을 몇 년간 지도하고 전국대회로 인도한 후 아르헨티나로 귀국하게 된다. 2002 월드컵 직전이었다. 가깝게 지내던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불러 "당신은 일본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남아 있소. 일본으로 가십시오"라고 말하자, 선교에 대한 마음만을 가슴에 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오르테가는 다시 일본에 오게 되었고, 그때 홍고다이그리스도교회로 인도되었다. 축구를 통해 일본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강인한 축구 선수를 길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는 비전을 오르테가는 교회와 나누게 되었고, 그 후 2003년 5월 축구스쿨 에스페란사(스페인어로 "희망"이란 뜻)가 개교하게 되었다. 현재 축구스쿨은 4세부터 중학생까지 300명 정도의 학생이 모여 미래의 프로선수를 꿈꾸며 진지하게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있다.

스포츠 전도 거점의 설립

이 사역은 스포츠 · 선교 · 훈련 · 센타(SMTC)를 설립하고 축구를 통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MTC의 세 가지 기둥

1. **스포츠 전도사 육성 :** 스포츠를 통해 전도하고자 뜻을 품은 선수와 코치를 육성하고 아시아를 비롯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한다. 같은 선교의 마음을 품고 배움과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일본인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학생을 받아들인다.
2. **크리스천 스포츠선수 육성 :** 4세~18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신앙 면에서도 기술적 · 인격적으로도 우수한 축구 지도자에 의한 일관지도를 기초로 육성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축구선수로 기른다.
3. **학생과 가족에게 전도 :** 정기적으로 스텝, 코치, 학생과 가족이 교제하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그러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흘러가며 학생과 가족 모두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지향한다.

위에 소개한 어린이 축구교실은 일본의 교회학교성장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며 운영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일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한다. 이를 위해 춘천의 교회와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가족인 정경숙사모, 두 자녀 조애린(대학원생), 조순(대학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있는 춘천의 우두감리교회(김영원목사)와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목사)와 현대교회(박현종목사)와 소양제일교회(이주호목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헤이와다이교회



다이아몬드 성전

빛의 통로 후원자 모집

당신의 후원은 일본복음화 1%미만이라는 일본선교의 어두운 장벽을 무너지게 하고 일본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연락처: 홍고다이그리스도교회 담당목사 : 이케다케이시
Tel: 81-45-894-3311
협력선교사: 조영상 전화번호: 81-90-9343-7584
한국의 모든 은행지로번호: 7500396(32번-조영상)

〈조영상 선교사 주소〉

- 16-16 minamisumiyoshi, Tokorozawa-city, Japan 359-1125
- yongsangjo@hanmail.net,
- 001-81-42-939-3398(T,F), 001-81-90-9343-7584(H,P)

젊은 교회, 일하는 교회,
박력있게 부흥하는 교회

효자감리교회: 김종호 목사

부속사역 : 은혜공부방, 은혜어린이집, 효자학사, 사랑의도시락, 유학생선교센터, 청소년대기만성센터

※ 효자학사 사생 모집합니다.
대 상 자: 대학생, 중고등학생
생활형태: 원룸형, 공동체형(다인실)
훈련내용: 영성, 지성, 식탁, 선교공동체
연 락 처: 010-5299-4048, 254-8861
비용은 최저 실비입니다.



춘천시 효자3동40-27 (033-255-8865, 010-3045-8865)



삼성화재해상보험㈜

박 중 삼 팀장 (효자감리교회 집사)

현 춘천지역단 춘천비전지점 FM (Field Manager)
삼성화재 본사 연도상 신인 우수상 수상 (2008. 6. 10)
2009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 (2009. 5)

H.P. 010-5364-4868
TEL. 033-256-9310
FAX. 033-256-9313

처음부터 끝까지 부끄럼지 않게 믿음으로 서비스합니다!

* 미래를 염려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동차 / 화재 및 재물 / 건강 (상해, 질병 실손의료비, 일당 및 사망담보) / 비용 (운전 중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 /
기타 (여행자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

생활에서 생명까지 성도님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섬기겠습니다!

* 성도님 인생의 터닝포인트 기회를 드립니다.
우수 인력 및 구직자를 위한 리쿠르팅
(매주 수요일 09:30~16:00 삼성화재 직업설명회 실시)



영혼의 풍성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교회

로뎀교회는 지난 1998년 4월에 창립되어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이한 성숙한 교회이다. 박수권 목사를 중심으로 석사동 부영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 영혼의 안식처 로뎀의 꿈을 가지고 시작한 로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로뎀교회(박수권 목사)편입니다

박수권 목사

박 목사가 처음 신학을 결심한 것은 한상돈 목사(당시 고신교단 목사)를 통해서였다고 한다. 일제시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고문당한 한 목사의 간증은 순수한 청년 박수권으로 하여금 사역자의 길을 가게 하기에 충분한 도전이 되었다. 박 목사가 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목회를 시작한 것은 35년 전. 서울 사당동의 "동명교회"를 개척하면서 부터였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던 열정 덕에 하나님께서는 동명교회와 박 목사를 넉넉하게 축복하여 주셨다. 개척 5년 만에 성도가 400명을 넘어선 것이다. 그 당시나 지금으로서나 주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 부흥사례였다. 엘리야를 위해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듯 뜻하지 않은 헌금의 손길들을 통해 목회사역이 순조롭게 풀려갔다. 「무궁화비누」로 유명한 K사장 사모님의 헌금, 「새한칼라」 L사장님이 교회의 터를 마련하는 일과 건축하는 일에 크게 협력한 기억이 깊이 남아 있다고 박 목사는 회고한다.



젊은 병사들과 암송한 시간

박 목사가 강원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뜻하지 않는 사건(?)때문이었다. 우연히 강원도 휴전선 인근의 군인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했던 박 목사는 복음을 갈급해 하는 젊은 병사들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인제 서화교회를 개척, 부임하면서 3-4년만 섬기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지 생각했던 것이 20년이 흘러가게 되었다. 최승례 사모와 약혼하고 곧바로 인제 서화로 가 즐거움과 설레임 속에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6-7개 대대 병사들을 심방하며 예배하던 20년의 세월이 잠깐처럼 느껴졌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필자의 마음에 훈훈한 감동이 밀려온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창29:20)라는 성경의 대목이 떠오름은 왜일까?

로뎀교회

인제 서화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또 다른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개척한 교회가 「로뎀교회」이다. "로뎀"이란 이름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사건에 기인한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선지자, 거짓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이세벨 왕비에게 쫓기어 도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었던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아래에서 쉼과 용기를 얻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왕상 19:5) 로뎀교회의 비전과 뿌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행복에 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교회를 이름에 걸맞게 춘천의 모든 도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영혼의 안식처로 제공하고 있다. 로뎀교회는 석사동 부영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인 까닭에 초기 구성원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300여명의 성도들이 거쳐 가며 박수권 목사의 해박한 성경지식과 상담, 치유사역으로 회복되어 어디선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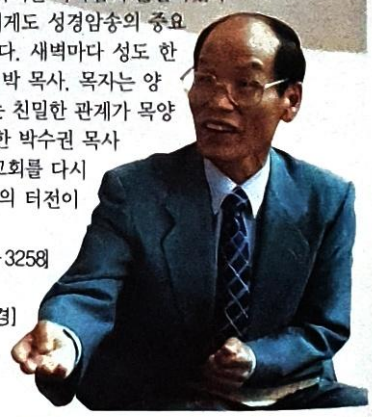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박 목사는 세례 요한처럼 한국 교회를 향하여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강직한 광야의 사역자로도 유명하다. 현대 교회는 지나친 물량주의와 외적인 것만을 치중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한국 교회가 신행일치의 삶과 청빈함, 실용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박 목사가 지금까지 자가용 승용차 타기를 거부하고 승합차를 고집하는 이유도 그것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박 목사는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재미에 빠져있다. 창세기 전체를 암송한 것은 오래되었고, 가능하면 매일 시간을 내어 각 권마다 성경암송에 힘쓰고 있다. 30여년 목회여정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성경암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고 역설한다. 새벽마다 성도 한 명 한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박 목사.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친밀한 관계가 목양의 기본임을 지적하는 박 목사. 이러한 박수권 목사와 함께 하는 로뎀교회야 말로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킬 시원한 청량음료와 같은 진리의 터전이 아닐까 깊이 생각해 본다.

▶ 로뎀교회 : 262-3258

[취재 최상도 / 사진 김미경]



2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을 섬기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벗삼아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www.rainbowhill.co.kr
춘천시지정노인요양원
무지개동산
노인장기요양 인정 1, 2등급자이면서 일반, 수급자(의료수급자) 가능
"요양, 보호 필요 하신 분 모두 오세요."
어르신들 황혼에 무지개동산이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춘천시 동면 월곡리 159번지
☎033) 241-7660
010-5367-6907
무지개동산

| 영혼의 양식

베드로의 회복

(요한복음 21:1~17)



이갑용 목사
(춘천CCC대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베드로의 생애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들을 선동해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에 주님은 다가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허탈감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처럼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을 때 빈 그물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주님은 빵과 고기를 구워 지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의 과오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 라는 깊은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에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에게 기적을 다시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 라고 부르지 않고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반석' 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반석은 커녕 굴러다니는 보잘 것 없는 돌멩이가 되어 버린 그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세 번씩 다시 부르시면서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픈 상처를 감싸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저의 모난 성격과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저의 부족함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지금도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저에게 중학교 2학년인 막내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느낌이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 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저의 사랑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저는 여전히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인 고멜을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주셨던 미션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은 물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픈 상처를 치료받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두움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사색의 창

잡초가 소나무를 죽인다?



조 정 일 장로 (광장감리교회 장로, 강원대서기관)

몇 달 전 CBS의 영성교 초대석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열매가 없는가?" 에 대한 설교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이거나 돌 짝밭에 뿌려진 씨는 아니고, 옥토에 뿌려진 씨이거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인데, 옥토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많이 맺으니 문제가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열매가 없다면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열매를 맺고 싶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시를 걷어 내어야 하는데, 이 가시를 걷어 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빌립보서 4:6)"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염려 대신 기도하면 되는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염려를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요한1서 2:15)"**는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사느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초를 안 뽑아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이생의 향락이라는 가시를 우리 속에 자꾸 허락하게 되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없다."**는 말씀이 저에게 매우 강력하게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의 권위에 더 철저히 복종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만천리의 주말농장에 갔다가 경사면에 심어 놓은 소나무를 살펴보는데 끝 부분에 심어 놓은 소나무 한그루가 잘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 보니 약 50cm 정도 되는 소나무가 안보일 정도로 잡초들이 소나무를 수북이 덮고 있었습니다. 급히 잡초와 엉겅퀴를 걷어 보니 놀랍게도 그 소나무가 누렇게 말라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순간 며칠 전 들은 설교가 나의 뇌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한번 뿌리가 내린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죽지 않는다는데 3년생 소나무를 4년간 길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집초에 덮여 죽어버리다니…" 지난 가을까지 틈틈이 잡초를 걷어 주느라 노력하였는데, 이 소나무는 맨 끝에 있다 보니 제가 미쳐 못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한다는 성경 말씀은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저에게 너무 생생하게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잡초가 7년생 소나무를 죽일 수 있듯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 속에 허용하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세상의 향락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시니 작은 전율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말씀의 권위에 복종을 하여야 한다는 며칠 전의 다짐에 다시 쐐기를 박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감사하였습니다.

농사라고는 전혀 해 보지 않다가 약 5년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벗 삼아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거나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에는 세상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가시가 내게서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의 권위 앞에 철저히 복종할** 것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성시신문 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기사투고) T.256-1260-1 F. 033)257-1260

Happy House

Happy House는 우두동에 새로 단장한 요양원이며 오제로는 무지개동산이 있습니다.
춘천 시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앞뜰에 넓은 잔디밭을 이용한 좋은 분위기의 휴식처가 또 다른 요양원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지금 아늑한 요양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기다립니다.

대상
- 노인장기요양인정 1,2등급자 이면서 일반수급자 (의료수급자)

혜택
- 전문인력 요양서비스
- 물리치료, 건강체크 프로그램운영
- 편리한 교통
- 최신실내공간, 넓은 잔디밭



춘천시 지정 노인 요양원
행복의 집
(주)242-3005, (이)241-2007, FAX.253-6007
011-448-7660
www.rainbowhill.co.kr ▷춘천시 우두동 150-6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평화감리교회 손선자 권사 -해나 천연물 신약(주) 대표이사- 편

"저는 오직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들과 함께 회사를 꾸려갈 수 있게 될 지 누가 알았겠어요." 더 놀라운 일은 당뇨환자의 혈당 강하와 합병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효능을 지닌 새로운 천연물 소재를 발견해낸 것이다. - (국민일보 기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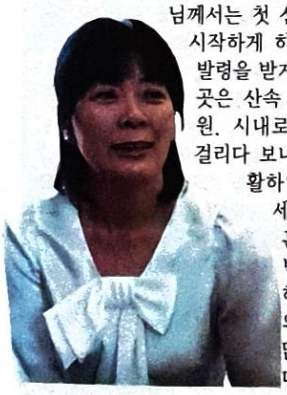
파란 하늘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파란 꿈을 꾸는 사람을 만났다. 평화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선자 권사(해나 대표이사)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랫말처럼 참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주님 앞에서 감히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하는 사업의 모든 수익금(100%)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손 권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영혼의 향기를 느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그녀의 신앙생활은 6살부터 충남 오지 섬마을에서 시작된다. 사랑으로 섬마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었던 의사이신 아버지 덕분에 낙도에서 살았다. 낙도개척 선교회 천막교회 선생님들의 찬송가 소리가 좋아서 스스로 교회를 출석하게 된다.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섬마을이다 보니 교역자가 수시로 바뀌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새벽기도회를 다니며 교역자 없는 교회의 종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 이때 교회사랑! 성도사랑! 목사님 사랑! 의 기본 신앙이 세워졌다. 섬에 6개월 만에 목사님이 부임해 오시면 너무 좋아서 목사님 애기 업어주고 빨래하고 기쁨으로 섬겼다. 혹시 목사님이 불편해서 가실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단다.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 말씀에 목말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것이다. 지금도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를 보면 그때가 생각나서 잘 섬기고 싶다고 한다.

특별한 신혼 생활

성장해서 수학 선생인 남편과 결혼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첫 신혼살림을 기도원에서 시작하게 하셨다. 정선 사북으로 발령을 받게 된 남편을 따라서 간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원. 시내로 나오는데 30~40분 걸리다 보니 아예 기도원에서 생활하였다. 4년 반 동안을 세상과 분리되어서 기도훈련을 받게 된다. 새벽에서 철야까지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의 수발을 들어주면서 많은 은사를 체험하였다. 만 5년이 지났을 쯤 "춘천으로 간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남편이 발령이 나서 춘천으로 오게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믿음의 땅, 춘천

춘천으로 와서 여러 교회를 전전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교회를 분명히 믿고 기다렸다. 평화교회 권사님 한 분의 끊임없는 권유에 못 이겨 "한 번 가주자!"는 마음으로 와서 은혜를 받고 23년째 평화교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 안에서 체계적인 말씀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은사의 균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더욱 더 강하게 훈련시키기 시작하셨다. 먼저 암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하셨고, 이어서 결핵으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간염으로 고통을 겪게 하셨다. 이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해 내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2006년 한 해 동안 143명을 전도해서 전도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도 136명 전도하는 등 몇 차례 전도상을 받았다. 자신의 병든 삶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손 권사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아주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받은 전도의 훈련은 후에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큰 영향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훈련시키신다.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과 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 손 권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다.

기적과 같은 사업의 문을 여심

고통의 터널을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15년 전 사업 보증을 섰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된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닥치는 대로 목숨을 걸고 일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은 아무도 몰랐다. 힘든 사업 과정을 거치면서 고통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게 될 준비가 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신다.



어느 날 기도 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노팔이다, 노팔." 노팔은 멕시코 사막 청정 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 이름이었다. 연구진이 비전문가인 손 대표의 말에 귀 기울일 리 만무했다. 그러나 막상 연구를 시작해 보니 해당 물질의 효능은 컸다. 평생 당뇨환자를 위한 천연물 신약을 연구해 온 서울대 약대 신국현 박사를 만난 것을 계기로 건강식품 회사는 제약 회사로 탈바꿈했고, 신 박사를 통해 서울대 약대와 이어져 신약 공동 개발에까지 이르렀다. 해나천연물 신약은 기능성 건강식품에 관한 많은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노팔 제품이 시판되면 매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균 담임목사님의 권유로 춘천으로 제약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강원도와 서울대가 공동협약으로 춘천에 해나 본사를 세우고 천연물 신약 연구소를 세우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대는 모든 연구진들과 연구소를 통해서 일하게 된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해나(주)와 손 권사가 있다. 그녀는 말한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수익을 100%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다가 얼마 전 에녹과 같이 홀연히 하늘나라로 간 남편의 믿음과도 일치한다.

새로운 사역으로의 부르심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담보로 걸고 일하는 사역자를 도와라"는 음성을 주셨다. 그래서 손 권사는 충북 음성에 '해가 나는 마을'을 세우고 있다. 이는 홈사모(홈로 사는 사모)를 위한 공간이다. 3500평 공간에 세워지고 있는 센터는 홈사모들이 마음껏 울며 기도하고 쉬고 일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기도의 허파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길 손 권사는 꿈꾸며 기도하고 있다. 앞으로 이 '해가 나는 마을'은 2만평으로 조성될 것이다. 손 권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보수하고 미자립 교회를 세우고 농어촌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손 권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역에 가슴이 뛴다.

손 권사가 대표로 있는 '해나'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며, 천연물은 빛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천연물로 질병을 치료하여 인류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것이 해나 천연물 신약(주)의 이념이다. 해나가 강원도 춘천으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하심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후원하고 돕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강원도와 춘천의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 해나 www.haena.kr, 본사.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1 사무실. 02-412-0715

[취재 유병준, 진행 정재호, 사진 김미경]

다니엘 MPR 기억법 속독법

학습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들도 기억왕 속독왕이 될 수 있습니다.



* MPR 기억법과 속독법의 효과
- 100초 이내에 100단어를 기억하는 비법
- 전 과목 읽으면서 기억하는 비법
- 한지 읽으면서 기억하는 비법
- 노트 필기 하지 않고도 강의 내용 100% 기억하는 비법
- 국사 세계사 역사 전표 100% 기억하는 비법
- 교과서 통째로 정리하여 기억하는 비법
- 시험 전 즉석에서 기억하는 비법
- 1시간에 영어 단어 500개 기억하는 비법
- 1분에 3만자 이상 읽기 - 보통 사람의 100배 실력 향상

[수업 안내]
- 접 수 : 수시 접수
- 수업일시 : 매주 화요일, 목요일
- 수업시간 : 5시 30분부터 시작
- 수 강 료 : 100,000원 (기억법, 속독법) 교재비 별도
- 매주 목요일 정진화 소장님이 직강 (MPR 심상학습 연구소 소장)
- 프 로 필 : 창의심상학습법 창안 저자, 한국 기독교 교육 대상 수상
- 한국 교육산업 대상 수상, 영재교육 부문 경영자 대상 등
- 장 소 : 평화성결교회(퇴계 주공1단지 정문 앞)
- 문 의 : 070-8225-8744, 010-2032-81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건강을 위한 운동

똑똑한 등산이 내 몸을 살린다 (IV)





「똑똑한 등산이 내 몸을 살린다」는 야마모토 마사요시의 저서(선우섭 옮김, 마운틴 북스, 2008)이다. 그는 운동생리학과 트레이닝 과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이다. 그의 저서는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 중에 등산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운동 생리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1.등산과 건강, 2.등산과 피로에 이어, 3. 중·고령층과 여성의 등산에 대하여 알아본다.

3. 중·고령층, 여성의 등산

1) 중·고령층을 위한 등산 요령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등산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연간 산에 오르는 사람이 1,500만 명에 이르고, 국민의 82%가 연 1회 이상 등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중에 5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등산을 자주하지 않던 중·고령층에서 건강에 관심을 갖고 등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스럽게 시작해야할 것이다. 먼저 체력이 저하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1) 중·고령층의 체력저하

A : 행동 체력이 저하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체력을 과대평가하기 쉽다.

B : 방위 체력이 저하한다. 방위 체력이란, 격심한 운동, 환경(기온, 기압 등)의 변화, 물리적인 충격, 병원균의 침입 등 신체에 나이를 먹으면 떨어진다. 예를 들어 나이를 먹으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혈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더위나 추위에 대한 체온 조절 능력이 낮아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회복도 늦어진다. 내장의 기능도 약해지고 뼈도 푸석해질 뿐만 아니라 관절(무릎이나 허리) 연골이 닳아 약해진다.

C : 체력의 개인차가 크다.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의 신체를 소중하게 다루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능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령층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년배의 사람들도 하고 있다고 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이다. 특히 중·고령층 사람들이 집단으로 등산을 하는 경우에 커다란 문제를 불러온다. 중·고령층 사람들의 집단 등산은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 지도자를 배치하여 관심을 갖고 산행을 이끌어야 한다.

(2) 중·고령층 등산가의 실태조사

7000명(95%가 40대 이상)의 등산가의 실태조사에서 상해가 자주 나타나는데, 상해는 근육통, 내리막길에서 다리가 후들거림, 무릎 통증을 나타낸다. 이런 증상은 다리 근력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신체 이상과 연령 사이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즉 등산 중의 신체 이상은 연령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현상은 거의 매일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과 1주에 1회 이상 등산을 하는 것이 신체 이상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 특히 평지에서 하는 트레이닝보다도 등산이 훨씬 상해 발생이 적었다. 이는 등산이 평지에서 하는 운동보다 등산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쾌적한 등산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트레이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등산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등산 빈도가 높아도 발생률이 떨어지지 않는 신체 이상 증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릎 관절통과 요통이다. 등산 자체가 무릎 관절에 대한 트레이닝이 되지만 동시에 무릎을 혹사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체 이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적합한 트레이닝(무릎 관절통의 경우에는 대퇴사두근의 강화와 스트레칭, 요통의 경우에는 복근의 강화와 척추근육의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3) 안전한 등산을 위하여

중·고령층 사람들이 등산을 시작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A : 건강 체크

B : 가벼운 운동을 시작한다.

C : 좋은 컨디션을 유지. 등산하는 날 좋은 컨디션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하여 신체를 조절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이나 비타민 D를 포함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또한 비타민 D를 활성화하기 위해 태양을 적절하게 쬐는 것도 중요하다.

D : 체력 트레이닝. 지구성 트레이닝이나 근력 트레이닝(다리 근력, 복근력 등)을 실시하면 등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건강의 유지·증진이나 요통, 무릎 관절통, 골다공증의 예방과 개선에도 좋다. 스트레칭도 중요하다.

E : 장비. 가볍고 기능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여성을 위한 등산 요령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고 지방량이 많다. 이것은 자동차에 비유하면 엔진은 작고 차체가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일반 여성과 남성의 체력을 비교하면 – 등산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 근력과 전신 지구력을 보면, 여성의 능력은 남성의 70% 정도이다. 따라서 여성이 등산을 할 때는 걷는 속도, 시간, 거리, 짐의 무게 등을 남성의 70%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 또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골밀도가 낮다. 넘어졌을 때 골절되기 쉽다. 그러나 근육량이 동일했을 때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트레이닝을 통하여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지방량을 줄이면 남성과 비슷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여성이 유리한 것은 방위체력이다. 예를 들면 지방이 많기 때문에 방한 능력(단 말초부위인 손과 발은 약하지만), 기아 상황, 고산병 발생률에 유리하다. 그래서 꾸준한 등산을 한다면 여성에게도 등산은 아주 유익한 운동이 된다.

[편집위원 고재 만]

제시뉴욕·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숙녀복 전문
패·션·리·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모연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스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유명애 /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 수채화 78×56cm / 1995

〈작품설명〉

양화진의 외국인 순교자 묘역을 그린 이 그림은 수채화입니다. 믿음의 화가가 선택한 수채화는 은혜의 수액을 담는 그릇이자 신앙의 내면을 투명하게 내보이는 적절한 회화 양식으로 마치 그림의 곳곳에 화가가 흘린 눈물 자국의 얼룩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국의 낯선 땅에 몸을 누이기까지 이곳에 잠든 이들의 생애는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 합니다. 이 독특한 양식의 그림 안에서 무덤속의 이야기들이 살아납니다. 작가의 마음이 붓끝으로 녹아들어 내용과 형식이 하나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림속의 양화진 언덕은 신선한 도전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소망 있는 삶에 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편집위원 이 관 형]

십자가의 명예

오늘도
삶의 멍에는
욕심과 질투에서
샘솟고

질주하는
소음처럼
세상 권세 위로
쌓이고

내일은
오늘의 멍에가
입막고 큰 귀 여는
낮아짐으로

주님 가신 길
뒤따르는
십자가의 면류관
명예가 되리!

– 시. 김 장 기 (춘천한길교회 권사)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18

건강한 물마시기 (II)



정 형 만 원장
(참사랑내과)

우리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가? 밥은 먹지 않아도 30~40일 정도는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도 살 수가 없다.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호에 이어 우리의 주요 식수인 수돗물과 건강한 물마시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 수돗물

상수도사업본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 수돗물의 수질은 점차 개선되어 오늘날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권장수준인 145개 검사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국민의 1.4%만이 수돗물을 그냥 마시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가 2008년 10월에 발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막연히 불안해서라는 답변이 40%로 1위, 2위는 냄새가 싫어서 19.5%, 3위는 녹물이 나와서 11.7% 순이었다. 실제로 수돗물의 관리는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 먹는 물의 종류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항목을 살펴보면 수돗물이 5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먹는 해양심층수 53개, 먹는 공동물시설 48개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수질관리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법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려면 처음 3분 동안 받은 물은 설거지나 세탁용으로 쓰고, 그 이후에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을 받아 20~30분간 그대로 두면 염소 등 휘발성물질은 대부분 제거된다. 이때 공기와의 접촉을 크게 하기 위해서 표면적이 큰 용기를 사용한다. 냄새가 없어진 수돗물을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8~14℃ 정도에서 꺼내 마시면, 물의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고 청량감도 있어서 좀 더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다. 수질개선, 이미지상승도 좋지만 지역적인 수자원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을 아끼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수돗물을 끓이면 염소와 기타 오염물질 등이 제거되어 살균 및 소독으로 인한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물이 끓기 시작한 후 바로 불을 끄지 말고 뚜껑을 연채로 5분쯤 더 끓이면 염소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끓인 물을 식혀 마시면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건강한 물마시기 10계명〉

1. **물짝물짝 자주 마신다.** 30분마다 조금씩 물을 마신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2. **성인인 경우 최소한 하루 2리터 정도 마신다.** 최소한 1.5리터의 물은 순수한 물로 마신다. 무 더 운 날에는 하루 섭취량을 0.5L 정도 늘린다.
3. **체온(37도)보다 낮게 마신다. 차거나 미지근하게 마신다.** 따뜻한 홍차나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차라리 따뜻한 물을 마신다.
4. **식사 도중은 피하고 공복에 자주 마신다.** 식사 중 물 마시기는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다.
5. **알칼리 이온수를 마신다.** pH 7.0~8.0 알칼리성 내지 중성.
6. **운동은 훨씬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운동 전에는 500~600cc 정도 미리 마신다. 운동 중에는 10~15분마다 120~150cc씩 마신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물을 탄수화물과 함께 마신다.
7. **신선한 물을 마신다.** 더운 여름 차 안에 오래 둔 페트병 물은 마시지 않는 게 낫다.
8. **하루 동안 고르게 나누어 마신다.**
9. **수분 손실을 보충한다.** 커피나 알코올을 한잔 마셨다면 같은 양의 물을 추가로 더 마신다(커피나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 커피, 홍차, 알코올, 탄산음료, 과일음료는 수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0. **끓인 물이나 생수를 마신다.** 약수와 지하수는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다. [끝]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는 신앙상담5

성경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비유풀이의 위험성

성경은 사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비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말할 때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그야말로 짐승입니다. 다만 그 짐승이 사람을 지칭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문맥 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신천지의 문제는 문맥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필요하면 아무 것이나 끌어다 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짐승이라는 표현이 약 300회 등장하지만 고전15:32, 딛1:12,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문자 그대로의 짐승을 말합니다.

전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언급한 21절 바로 앞의 구절들이 증명합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도다.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전3:19-20).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 가지 일이 닥치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짐승의 몸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짐승을 바리새인과 같은 개와 돼지로 읽는다면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이 헛될 뿐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전도서 기자는 그들도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어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짐승은 짐승으로 읽어야 합니다. 더 영적인 것처럼 하려고 문맥을 벗어나 말씀을 읽으면 벌거숭이 임금님이 됩니다. 옷을 벗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성경을 왜곡하여 기성교회를 개와 돼지 같은 짐승의 집단으로 만들고 이만희 씨를 이긴 자요, 보혜사라고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낸 아주 저급하고 유치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_작자 미상

기독교인 현혹을 위한 신천지의 새로운 전략

최근에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하는 전략과 더불어 성경공부를 위한 '비전 아카데미'을 개설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아카데미를 여는데, 춘천에는 최근 법원에서 남춘천 방향으로 농협 옆의 SM뮤직센터(노래방) 안쪽에 '비전 아카데미'가 들어와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접근방법이 매우 다양한데, 대학생인 경우 강대라이크 등 인터넷 카페에서 스터디 그룹을 조직할 때 의도적인 계획아래 두세 명이 모르는 사람인 척 스터디 멤버로 조인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전도사를 개인적으로 소개시켜주는 등 친절과 관심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 등에 초대하여 연결 후 스터디 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및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교회의 청년도 잘 모르고 참여했다고 하고, 주야간 반에 각각 50여명이라는 것을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와의 관련을 모르고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성경 공부하는 것을 남에게 알리면 사탄이 방해할 수 있다고 미리 경고를 하기도 하고, 이단들을 소개하면서 신천지까지 들먹여서 신천지와의 관련이 없는 것처럼 초급반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상급반에서는 태도가 달라지겠지요.

춘천의 여러 교회들의 피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단, 신천지는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걸고넘어지기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경계하면서 성도들이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편집부]

예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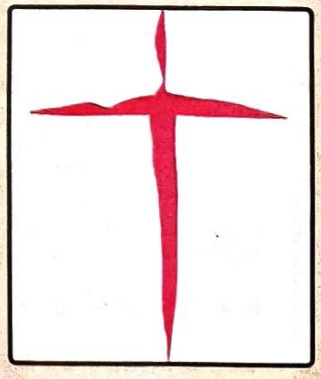
7시간 기도

수많은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는 박종훈 집사는 은행원으로서 하루 7시간을 기도했다고 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처음엔 그도 5분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머리에 두통이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에는 10분,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30분, 1시간, 2시간, 5시간, 7시간까지 기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7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된 비결은 기도하는 것을 하루도 쉬지 않은 것에서 찾는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루정도 쉬게 되면 하루분량의 영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분량의 영성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므로 어제 15분 기도를 했다면 오늘 기도가 잘 안되어도 15분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도 박 집사처럼 수많은 기도응답의 체험을 가져보자.

[편집위원 최 상 도]

성 시 만 평

이 관형 · jysince93@hanmail.net



내 마음속의 십자가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고재만 권기찬 김미경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유병준 정재호 조영춘 조나단 최상도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샬롬간병인

사무장 권 정 자

○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전문간병사의 손길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간병사가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

※ 저희 업체는 환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GS스타주유소 2F
T. 033)242-3013 M. 011-365-9714 / E. kwong62@hanmail.net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 22년

마음과 정성으로 한복의 멋을 이어나갑니다.

(신부님께는 예쁜 아암을 선물로 드립니다.)

투심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심경 김 기 순 권사(춘일교회)

☎ 243-9019, 011-1788-8406 [약사동 마을금고 옆]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노인요양시설 위로의 집



■ 양로원 설립과 목적

춘천시 서면 덕두원 2리 3반에 있는 '위로의 집'은 **"마음은 즐겁게, 방은 따뜻하고(겨울) 시원하게(여름), 음식은 맛있게, 환경은 깨끗하게, 영혼은 천국 가시게"**라는 신조로 치매, 중풍, 뇌경색, 하체마비 등 오갈데 없는 할머니 15분을 유상교 전도사 부부와 6명의 직원, 10명의 운영위원이 믿음과 사랑으로 정성껏 모시고 있다.

'위로의 집'은 지난 2002년 2월 13일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남의 빈집을 얻어 할머니 2분 무료로 모신 것이 처음 시작이었다. 양로원으로 시설허가를 받지 못해서 고생도 했었고, 돈이 없어 연탄과 먹을 것이 없어 힘들었던 때도 있었다. 5년간 북산면 추곡리, 신동 옴미 농가주택, 서면 등 4차례의 이사 끝에 현재 서면 덕두원에 자리 잡게 된다. 이웃주민, 면사무소, 춘천시청, 강원도청 등의 봉사자, 후원자들이 양로원 사역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양로원의 꿈

원장 유상교 전도사는 16살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19살에 6명의 선배 집사님과 시골 간척교회를 개척, 교회 전반의 일을 배우고 봉사하였다. 머슴살이, 부식과일장사, 농사일, 막노동에 이르기까지 땡비, 올빼미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던 유 원장. 그는 불우한 성장과정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웃 어르신의 눈물을 보면서 양로원의 꿈을 꾸고 기도하게 된다.

시청복지과 도움으로(추천서) 서울명지대 사회복지과를 졸업, 또한 목회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연합 신학교에서 공부, 2007년 10월 '위로의교회'를 창립하였다. 양로원과 함께 교회 사역을 통해 영혼구원에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웃음치료지부장, 건강보험공단운영위원, 개인신고시설강원지부장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있다.

■ 행복한 웃음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위로의 집'에서는 영혼의 안식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리고 행복한 삶과 건강을 위해 웃음치료, 동요 · 찬송 · 민요 부르기, 미용, 건강관리, 구구단 · 천자문 외우기, 미술치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웃음치료는 노인성 치매와 우울증 치료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 **웃음치료** : 국제레크리에이션협회 웃음치료 춘천시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유상교 원장은 매일 1회씩 웃음치료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우울증, 치매가 치료되는 체험을 하고 있다. 유 원장은 "치매, 우울증은 기쁘고 즐거워야 치료가 됩니다. 지금도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8분이나 되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마음의 근심은 뼈가 마릅니다. 성경에 544번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웃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45초 웃으면 물리치료의 효과가 있고, 10분 웃으면 2시간 수면 효과가,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좋은 백혈구가 몸에서 나옵니다. 억지로 웃어도 95% 효과가 있고 매사에 감사하면 웃을 수 있어요." 라고 웃음에 대해 강조하며 웃음치료전도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레크리에이션협회 춘천웃음치료지부 49명의 회원이 춘천시, 병원, 학교, 교회, 군부대, 교도소, 노인대학, 기관 등 봉사하고 있으며, 강원도 전시설과 노인정에 각1명씩 웃음치료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 **지역주민잔치** : 덕두원 주민잔치를 열어 웃음치료, 노래자랑, 무료진료, 감사패전달 등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2회 실시).
* **교도소선교** : 강원일보사의 도움으로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다〉 책을 발간, 교도소 선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국교도서 선교 10년째로 8~12명에게 후원금, 물품, 면회(화상접견), 편지, 기도, 우표사보내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외로운 할머니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는 '위로의 집', 많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다. 위로의 집을 섬기는 귀한 분들과 할머니들에게 사랑의 은사가 더 충만해지고 항상 행복하기를 바란다.

♥ 위로의집 – 춘천시 서면 덕두원2리3반 위로의집(노인요양시설)
전화: 033-244-5092 / 팩스: 033-244-5093
홈페이지 (http://www.wirohouse.net/)
웃음치료동우회 (http://cafe.daum.net/chunchonsmile)











【춘천성시화리그 교회대항 축구대회 5월 경기전적】 2009. 5. 26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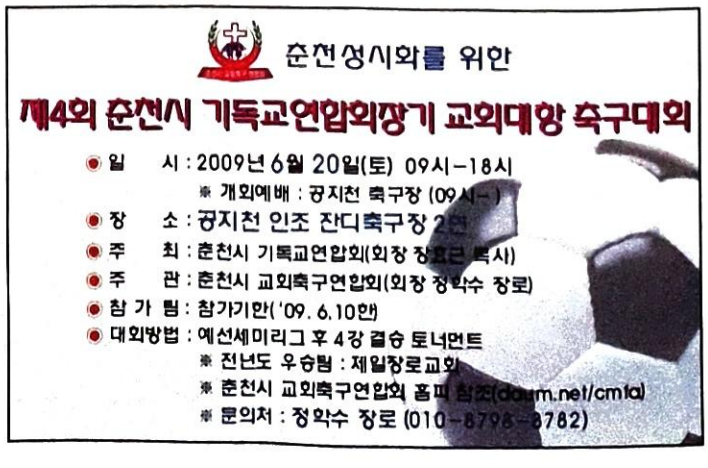
교회	감초	샘산	동부	삼천침례	석사	소양	시온	은누리	제일	중앙	새내리	명희	효지	경기 승	경기 무	경기 패	득점	실점	득실	점수	순위
감초				1:0		1:0		4:1			5:4	6:3	2:3	5	4	0	23	17	11	6	12	6
샘산			0:5				2:4		3:9	1:2	0:1	0:2		6	0	0	6	6	21	-15	0	12
동부		5:0		6:2		5:2		3:0	1:0	5:1	3:2			7	7	0	0	28	7	19	21	1
삼천침례	0:1		2:6		1:6		0:3	1:2	1:4	1:5	0:7			0	0	0	8	6	34	-28	0	13
석사				6:1		4:3	1:1	5:2	6:0	2:2		5:1		7	5	2	0	27	10	17	17	3
소양	0:1		2:5		3:4		2:2		0:1		0:4		3:5	7	1	1	5	18	22	-4	4	10
시온		4:2		3:0	1:1	2:2		3:0	1:3			2:1		7	4	2	1	16	9	7	14	4
은누리	1:4		0:3	2:1	2:5		0:3						0:1	6	1	0	5	5	19	-14	3	11
제일		9:3	0:1	4:1	0:6	1:0	3:1			2:0		4:1		8	6	0	2	23	13	10	18	2
중앙		2:1	1:5	3:1	2:2				0:2			2:2	2:1	7	3	2	2	14	14	0	11	7
새내리	4:3	1:0	2:5	7:0		4:6							3:2	6	4	0	2	21	14	7	12	5
명희	5:6	2:0			1:3		1:2		1:4	2:2			1:1	7	1	2	4	11	18	-7	5	9
효지	3:2					5:3		1:0		1:2	2:3	1:1		6	3	1	2	13	11	2	9	8

6월 경기일정

구장	시간	6월 01	08	15	22	29
A	20-21	중앙 : 감초	시온 : 동부	삼천침 : 효지	시온 : 감초	석사 : 감초
	21-22	새내리 : 명희	은누리 : 금산	석사 : 동부	제일 : 새내리	소양 : 명희
B	20-21	석사 : 효지	제일 : 감초	소양 : 금산	동부 : 효지	시온 : 새내리
	21-22	소양 : 삼천침	중앙 : 새내리	은누리 : 명희	삼천침 : 금산	은누리 : 중앙

▶ 춘천성시화리그 교회 대항 축구대회
○ 일 정 : 2009. 3월~7월(5개월간), 매주 월요일 20:00~23:00
○ 장 소 : 공지천 축구장 / ○ 참가팀 : 13개팀 / ○ 진행방법 : 풀리그 (22주 78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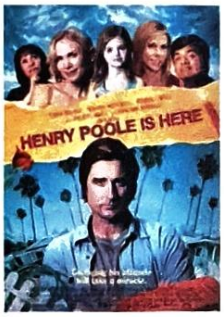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24>

헨리 풀 이즈 히어 (Henry Poole Is Here)





여기에 믿음과 기적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영화는 필자에게도 정말 기적처럼 다가온 작품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한번쯤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믿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적이란 어떠한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조그만 단서도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뜬금없이 찾아온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헨리 풀.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어렸을 때 자랐던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삶을 정리하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버렸기에 근처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이사한다. 자신이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전주인의 애인이자 바로 옆집에 사는 에스페란자 부인, 1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어린 소녀 밀리와 그녀의 엄마 돈, 시력이 굉장히 나빠 돋보기를 끼고 살아야하는 슈퍼마켓의 페이션트… 겉으로 보기엔 모두 평범하지만 각자 자신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웃들과 계속해서 엮이게 되는 헨리 풀. 어느 날 에스페란자 부인의 호들갑에 놀란 풀은 그녀에게 이끌려 자신의 담벼락에 생긴 얼룩을 보게 되는데, 부인은 그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며 신의 계시라고 믿기 시작한다.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주민들은 하나 둘씩 헨리 풀의 집에 찾아오게 되고 정말 기적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인지는 몰라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그들의 믿음에 시종 회의로 일관하는 풀의 모습은 도마를 연상시키지만 사실 도마는 이미 믿음 안에서 의심을 가졌는데 반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애초에 신앙에 관심도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떻게 조금씩 열려 가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란? 끝까지 보면 잔잔한 감동과 은혜가 느껴진다. 결국 결론은 상당히 유보적이어서 생각할 여지를 긴 여운으로 남겨두지만…

주인공 헨리 풀 역은 오웬 윌슨의 형제이자 〈금발이 너무해〉 〈베이컨시〉〈이디오 크러시〉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루크 윌슨'이 연기하였으며, 그의 옆집 이웃이자 사랑을 키워가게 되는 돈역에는 〈네버랜드를 찾아서〉 〈모짜르트와 고래〉 〈사일런트 힐〉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으며 최근에는 〈황시〉의 여주인공역을 맡았던 '라다 미첼'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 연출은 그동안 〈모스맨〉 〈함정〉 같은 스릴러물과 TV드라마 〈콜드케이스〉 등을 연출했던 '마크 펠링톤' 감독이 담당하였다. 〈2008년 작, 상영시간 1시간 40분, 모든 연령층 관람가〉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현 시국을 바로보는 눈!

[사진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北, PSI 반발…"서해 안전항해 담보 못해"
노무현 전직 대통령 서거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5월 27일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만이다. - 남북한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

■ 경남 경찰청은 23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오전06:50분쯤 자택 뒤편 봉화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 충격에 빠진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이를 계기로 대립과 갈등이 종식되고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하자.


① 북 미사일 발사


② 해상훈련


③ 노무현 전직 대통령 서거


④ 이어지는 조문객들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와이신협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1계인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5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거성교회		광명교회	
나눔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사암교회	
새춘천교회		세인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예당교회		예수촌교회	
온누리교회		주영광교회	
주향교회		춘천광영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와이신협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 교회		춘천제일장로 교회	
평화실로암교회		한빛교회	
국민일보 춘천지사		기독무용선교회	
영광한의원		제시뉴욕	
위로의 집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강선희	강옥자	김진록	강태랑
고순덕	김관수	김기태	김태숙
김라현	김영숙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민섭	김복심	김성국
김성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숙
김영순	김영일	김요섭	김은주
김재홍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친	김주환	김진상	김현미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남상구
류재웅	마호숙	민병순	박난영
박동환	박래희	박인관	박정예
박제자	박종근	박필상	박형숙
배신철	변춘자	석지찬	송난의
신성균	심경하	안미애	안현주
양금환	오순자	오의석	오흥수
원희정	유길순	유근창	유병준
유성현	유인혁	유재형	윤성자
윤애자	윤태호	윤흥목	이계문
이규현	이내리	이동인	이영순
이무식	이병일	이상돈	이상만
이수길	이수황	이순자	이영진
이용규	이원균	이원기	이원영
이윤숙	이정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이혜인	임재철	임창수
장기남	장기영	장덕례	장선정
장소영	장소희	장요한	장주현
장창순	전영목	정규시	정미경
정은하	정재균	정재현	정주연
정찬복	조건이	조명호	조소현
조은제	조정일	조정자	지경희
차경자	최계화	최병숙	최상호
최영순	최윤용	최예석	최종덕
최춘영	최혜영	탁광희	한성이
한순수	한희현	함종현	허미정
허순연	허연영	허인영	홍순복
홍순신	홍택기	황병찬	황은주
황정섭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척 미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255-5722 F.256-5722
전 천 일 장로 아파치학교성집이(스텔) (서울동부13가수도)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않는 복음

김 종 호 (효자교회)

2006년 노벨상 수상자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파이어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기회를 허투루 보지 않는 것이다. 항상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한테는 이 길뿐이다' 하고 가다가도 뜻하지 않은 장애와 난관을 마주할 수 있다.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하다. 사업이나 학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변화에 빨리 대처한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지, 더 나은 길은 없는지' 항상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유연함을 길러주는 것은 그래서 교육에서도 중요하다."

해외 영화제에서 7개의 상을 휩쓴 영화 '똥파리' 양익준 감독, 서울 난곡동 반지하방은 시나리오 집필실-세트장-스태프 숙소로 사용했고 제작비 2억5000만원이 모자라 월세 보증금까지 털었다. 완성된 시나리오가 영화화되기까지는 모두 4개월. 그는 2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갖고 "35년간 살아오며 머리가 아닌 맨몸으로 몰아 쓴 일기 같은 영화"라고 말했다.

자신이 주연 감독 편집 등 1인 3역을 맡은 영화 '똥파리'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뒤 17개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아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타이거상, 프랑스 도빌 아시아영화제 대상과 국제평론가상 등 5개 해외 영화제에서 모두 7개의 상을 받았다.

그는 "상을 받을 줄 상상도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는 영화에서 거짓말은 안했잖아'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우물쭈물하지 말고 갖고 있는 걸 모조리 태워버리자는 무모함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차기작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눈빛이 달라졌다. "두 달 전 술에 몹시 취해 혼자 길을 걷는데 길가에 맨홀이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지상과는 상관없이 지하 맨홀 아래서 사는 13세 소녀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보는 내내 펑펑 울 수 있는 영화도 만들어보고 싶고요."

나는 살면서 단순 반복의 시계바늘처럼 사는 삶은 우리를 지루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파이어교수의 말처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해서 치고 나가야(Hit and Run)한다고 생각한다. 참된 변혁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변혁은 단순한 지식보다는 체험된 지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후기 기독교시대에 쇠퇴하는 교회가 사는 길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는가를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을 역시 과감하게 취하여서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하고 적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양 감독의 말처럼 "우물쭈물하지 말고 갖고 있는 걸 모조리 태워버리자는 무모함으로" 다가 가야할 것이다. 몰입이 성공을 만든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엡2:10)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딛2:14).

알 려 드 려 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연도협회

1) 2009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일시: 6.1(월) ~ 2(화) 오후6:30~10:00 장소: 석사감리교회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에스컴

1) 에스컴 프레이즈
일시: 6.20(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2) 에스컴 썸머 캠프 <가라 모세!>
•1차 8월 6~8일 평화수양관(남양주) (1차는 마감되었습니다)
•2차 8월10~12일 충신수양관(마석)
문의: 에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clove
박진용 간사 010-8901-7004, 033)244-5400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인천국제공항사회를 위한 LTC전도훈련
일시: 6.15(월) ~ 18(목)
2) CCC 전국대학생 여름수련회
일시: 6.28(주일) ~ 7.2(목) 장소: 강원도 평창
문의: 252-0542, 254-5776

◆ 예수원도란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춘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봄내병원)
대상: 중보기도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3) 12기 춘천 킹스키즈 King's Kids - "빛 가운데 뛰놀리라"
일시: 6.13 ~ 8.29 매주 토요일 오후3시~8:30분
대상: 초등4학년 ~ 고2학년 (전도여행: 중국 운남성)
4) 박종호&예수전도단 서울화요모임 전국투어
일시: 6.20(토) 오후7시. 장소: 석사교회
문의: 033)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여름수련회
일시: 6.29(월) ~ 7.3(금) 장소: 경기도 대동교회 수양관
2) 강원IVF 출신 전임사역자 모임
일시: 6.15(월) ~ 16(화) 장소: 원주 치악산 자연휴양림
3) 간사 사역회의 및 가족 수련회
일시: 6.16(화) ~ 19(금) 장소: 제주도
4) 기초신앙훈련 : 7.6(월) ~ 11(토)
5) 아볼로훈련: 7.6(월) ~ 11(토) 문의: 252-5200
6) GMLT(글로벌 미션 리더십 트레이닝) 대상: 리더
일시: 7.6(월) ~ 8.3(월) 장소: 말레이시아 페낭

◆ JDM

1) 전체 중강예배
일시: 6월 16일(화) 오후7:15분 장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2) 말레시아 선교훈련
일시: 6월 22일(월) ~ 7월 2일(목)
중심활동지역: 쿠알라룸푸 내의 대학캠퍼스
문의: 033)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선교회

1) 선교학교평가회 및 리더십 세미나
일시: 6월 2일(화) ~ 5일(금) 장소: 미정
문의: CBT춘천지부 252-3927 chuncheon@v2025.or.kr

◆ 인터콥 춘천지부

1) 2009 선교캠프
① 청년 대학생 선교캠프 : 6.24 ~ 27, 호서대 아산캠퍼스
② 여성 시니어 선교캠프 : 7.9 ~ 11, 원주 밍성 수양관
③ 어린이 선교캠프 : 7.23 ~ 25, 충주호 리조트
④ 청소년 선교캠프 : 7.23 ~ 25, 호서대 아산캠퍼스
문의: 춘천지부 033)262-1040
2) 하늘의 예배, 한국선교부흥의 엔진, 월드미션
일시: 6월 15일(월) 오후7시
장소: 춘천광염교회(애막골 진흥APT상가 맞은편)
•지부 사무실 이전: 운교동 CBS 3층, ☎033)262-1040

◆ 테이레(춘천연합찬양단) 찬양대 워십

일시: 6월 1일, 15일(월) 오후7시 장소: 이루어가는교회
문의: 010-9368-9856

◆ 새벽날개 워십선교무 토요워십댄스반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반9:30분~11:00, 오후반3시~4:30분
대상: 아동부(6세~15세), 성인부(리장인 · 주부 · 청년 · 사역자 등)
장소: 경원대태권도장(우석초교옆) 문의: 263-6022, 017-374-2440

◆ 목회자 축구회원 모집

일시: 월 ~토요일 매일 오전6시 장소:공지천 족구장
회비: 무료 문의:011-361-1995

◆ 심령대부흥성회

일시: 6.8 ~ 11일 오전11시, 저녁8시 / 강사: 안종열 목사
장소: 오순절기도원 (010-8263-0190)

◆ 크리스천 기타교실

• 초급반 / 중급반 (새찬송가 645곡 찬양/반주 완성)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8:30 장소: 춘천 동성교회
문의: 뉴랜드음악선교원 010-6654-8280

◆ 춘천기독선교무용단 단원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하나님을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앞 15단같비 4층
• 교회 방문 수업 가능 문의:춘천기독선교무용단 (010-3180-5330)

◆ 미라클허모니(천양선교) 단원 모집

대상: 만20세 이상 세례교인, 비전공자 가능, 찬양의 열정을 가진 분 환영
연습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7:30 ~ 9:30
연습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법원앞 봄내병원)
문의: 019-763-8868, 다음카페/미라클하모니

◆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목욕 : 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으로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1-366-4972, 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장로)

◆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 장기요양 인정 신청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문의: 019-9138-4452, 251-4452 남부제일교회 송항순 장로

◆ 춘천요양보호사연합회방북지부센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요양등급판정 안내
문의: 011-9731-0259 (시회복지사 신미정)

◆ 재균병인 화랑

• 중고교생의 교복 재활용에 동참하세요(많이 보내주세요).
문의: 242-6091, 010-2245-6091 (Jesusway교회 황관중 목사)

◆ 교역자연합회 교단별체육대회

일시: 6.1(월) 오전10시 장소: 공지천 인조잔디구장
종목: 축구, 족구, 풋살

◆ 남사회 연합동 부기도회(CCPN)

일시: 6월 5일(금) 오전11시 장소: 유스아트홀중앙상가 맞은편
주제: 민족사랑 주관: 봉임나눔터
문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수 방문 요양센터(기관)

센터장 / 남부제일감리교회 송 항 순 장로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과 65세 미만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원하시는 분
◆ 서비스 : - 등급판정 안내
- 요양사(1급)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

세수 · 목욕 · 배변처리 · 식사 · 세탁 · 청소 · 산책 · 병원 진료 동행

☎ 상담문의 033)251-4452, 019-9138-4452 (남부로터리 대원당 옆)

크리스천 기타교실

□ 초 급 반 : 15명
□ 중 급 반 : 10명 (새찬송가 645곡 찬양/반주 완성)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6:30~8:30
□ 장 소 : 춘천동성교회(팔호광장 축협맞은편)
□ 운 영 : 3개월 코스 (St/Al)
6만원(월2만원 ×3개월)
헌금/후원금으로 일경비 조달
□ 선 교 : 일반 시민 무료
□ 개 강 : 2009. 7. 7(화)
□ 접 수 처 : 욕림악기사 (☎252-5041)
□ 문 의 : 010-6654-8280

통기타 대중시대 쉽게 배웁시다

■ 성시화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예배가 5월 20일(수) 오전11시 성시본부에서 있었다. 이날 염윤호 목사(평화성결교회)는 "부르심의 응답"(렘26:10~15)이란 제목으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정체성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의 부르심을 알았고, 그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했다. 하나님께서 성시화를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보편적인 사고와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말씀에 서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시화의 사명 감당과 휴리클럽창립13주년기념 성령대부흥회, 그리고 세계젊은이축제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 김광국 목사 은퇴예배



성광장로교회를 25년간 담임목사로 섬겨온 김광국(65) 목사는 5월 3일(주일) 은퇴예배를 갖고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제주 출신으로 부산장신대학,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37년간 목회의 길을 걸어온 김광국 목사는 "앞으로는 고향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 춘천CBS 창립 14주년 기념예배



춘천CBS(본부장 김세환) 창립 14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5월 7일(목) 오전9시 춘천시 운교동 방송국 5층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날 박상호 목사(춘천제일장로교회)는 '비전이 있는 성숙한 신앙공동체'란 주제로 "춘천CBS는 지역 방송 선교의 요람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은혜 받는 선교적 사명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세환 본부장은 "지난 14년간 춘천CBS는 지역 교계의 기도와 헌신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면서 "은혜가 넘치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제2회 국가변혁 컨퍼런스



제2회 국가변혁 컨퍼런스가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오전, 오후, 저녁 세션으로 나뉘어 할렐루야교회에서 열렸다. 교육/미디어/대중문화의 변혁, 사회변혁을 위한 교회의 역할, 변혁선교 및 건강도시 운동 등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13일에는 정치변혁과 공개토론 문화의 방향성에 대해 국회의원회관에서 마지막 세션이 진행되었다. 작년에 국제변혁네트워크 총재이신 마크 빌라일즈(Mark Beliles) 박사가 주 발제자로 초청되어 성경적 세계관으로 모든 문제를 명쾌하고 단순하고 풀어 주었다. 일곱 번째 발제(건강도시운동을 통한 한국사회 변혁)에서 조무성 교수가 건강도시운동을 주창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재호 목사도 참가하여 여러 전문가들과 교제하며 춘천성시화운동을 소개하였다.

로렌 커닝햄 목사 도시변혁집회





국제 예수전도단(YWAM) 설립자이자 국제열방대학 총장인 로렌 커닝햄 목사가 한국을 방문, 춘천을 비롯한 군산 대전 포항 청주 등 10개의 도시를 투어하며 도시변혁을 주제로 집회를 가졌다. 로렌 목사는 5월 18일, 19일 춘천을 방문, 예수전도단 춘천지부(대표간사 김준환)의 주최로 오후 7시 석사교회에서 연합집회와 19일 오전10시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로렌 커닝햄 목사는 이번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축복의 시기를 살아가는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헌신해야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새로운 전도문화 창출 '음악과 강연의 밤'





강원대기독교수회와 선교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4회 음악과 강연의 밤'이 캠퍼스 복음축제(EF: Evangel Festival)로 5월 14일(목) 오후7시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로렌조 컴퍼니의 뮤지컬 갈라콘서트, A-seed의 아카펠라, 예끼의 난타 퍼포먼스에 이어 소명연구소 신동렬소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는 기획과 복음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지역 교회 청년대학부의 활성화와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가정회복을 위한 중보기도회



춘천중보기도네트워크(CCPN) 정기기도회가 5월 8일(금) 오전11시 유스아트홀에서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주관으로 "기독교와 가정회복"이란 주제로 열려 5월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명 장로(춘천성시화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김민경 예수전도단간사가 기독교문화와 깨어진 가정의 문제점, 가정회복을 위한 기도제목을 나눈 후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였다.

■ 혜민사랑의 집 창립 6주년 기념예배



순복음춘천교회 부설 '혜민사랑의 집' 창립 6주년 기념예배가 5월 13일(수) 지역 독거노인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주환 담임목사는 설교를 통해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에 항상 좋은 생각으로 감사하며 살자"고 했다. 조남진 혜민사랑의집 대표는 "지금까지 18만여 명이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해왔는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혜민사랑의 집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6일 무료 점심과 주 1회 무료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성시신문 편집위원회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회(위원장:최영조목사)는 5월 14일(목) 오전 11시 서면 오리야에서 모임을 갖고 126호 평가회 및 127호(6월) 기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1회 춘천 세계젊은이축제



유학생들을 위한 제1회 춘천 세계젊은이축제가 5월 22일(금) 오후4시 바나바유학생교회 주최로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에서 열렸다. 이날 바나바교회를 개척분리한 효자교회 김종호 목사와 일본의 조은제 · 기정희 선교사, 임엘리야 · 홍숙화 선교사, MPS 민경원 교장, 원주함께하는공동체 최철영 목사 등과 중국, 일본, 필리핀 유학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제일교회 류자형 목사는 "도전하는 젊음!"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레크레이션, 디너파티, 유학생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축제가 진행되었다. 유병준 담임전도사는 "유학생들에게 복음과 함께 타 문화권에서 겪는 어려움을 돕고 이들을 믿음으로 세워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역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통일나눔터 정기기도회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모임인 통일나눔터(회장 김수복 목사) 정기기도회가 5월 26일(화) 오후5시 성시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일본에서 사역 중인 조은제 · 기정희 선교사와 MPS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엘리야 · 홍숙화 선교사는 "일본 조선학교의 변화된 교육과 상황, 그리고 이들을 향한 선교비전"을 나누고 그동안 무관심했던 이들을 향해 이제는 관심 가져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남북한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 일본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통일나눔터는 매주 화요일 5시 춘천성시본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춘천홀리클럽 창립13주년 기념

춘천성시화를 위한 성령대부흥회

"오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최 | 춘천기독교연합회 주관 | 춘천 홀리클럽

후원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2009. 6. 14(주일) 저녁 ~ 6. 17(수) 저녁

주일저녁, 삼일예배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장소 안디옥 감리교회(석사동 현진에버빌 옆)

강사



김흥도 목사
서울금란교회 원로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김삼환 목사
서울 명성교회 담임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총회장



손기철 장로
서울 온누리교회 시무장로
건국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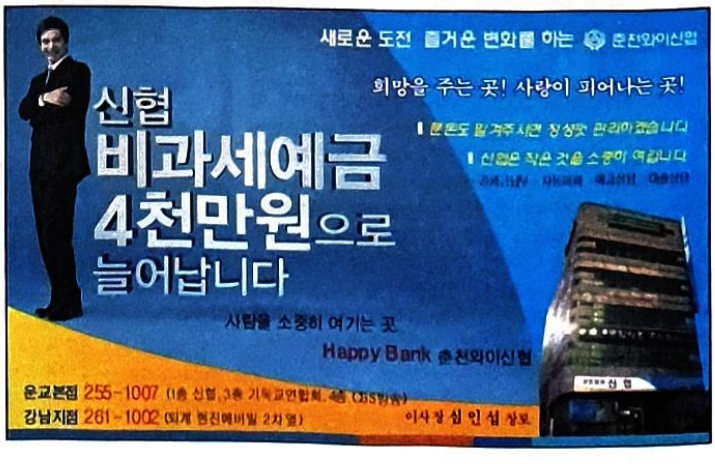
- 전용태 장로
  한국홀리클럽연합회 대표회장
- 최호자 권사
  홀리클럽 여성 기도모임대표
- 최재선 박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내용 ▶대부흥집회 : 오후 7시 30분 부터
▶간증 및 주제별 말씀 : 오전 10시 30분 부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6.25 구국기도회

- 일 시 : 2009. 6. 25(목) 오후 7시
- 장 소 : 동성장로교회
- 강사예정 : 김 병 로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 공동주최 : 춘천교역자연합회 기도분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중보기도네트워크(예수전도단, 예스컴, 인터콥, IVF, 통일나눔터, 청년포럼, 홀리클럽) 등이 함께 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